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7, Vol. 4, No. 1, 55-7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류 정 희[†]

이 명 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 구조가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둘째, Keyes(1998)가 제안한 사회적 안녕감의 5요인 구조가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셋째,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생 602명(남학생 302명, 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척도, 긍정적-부정적 정서 목록,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사회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위의 문제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 구조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8문항의 6요인 구조모형(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eyes(1998)가 제시한 사회적 안녕감의 5요인 구조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실현이라는 4요인 구조모형이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요인은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율성이었고,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으로서는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성장, 자아수용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예언하는 하위요인이었다. 둘째, 사회적 안녕감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의 각 하위요인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요인은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이었고,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은 사회적 통합이었다.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은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통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통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예언하는 하위요인이었다.

주요어 :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 교신저자 : 류정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Tel : 062)530-2340, E-mail : teodosia@naver.com

Dalai Lama(2002)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이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행하는 행동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행복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라는 질문은 최근 몇 년 간 긍정심리학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강점을 키우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위해 인간 경험의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연구하고 있다.

첫째, 주관적 수준에서, 긍정심리학은 긍정적인 주관적 상태 혹은 행복, 즐거움, 삶에 대한 만족, 이완, 사랑, 친밀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연구한다. 에너지, 생기, 신념, 웃음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효과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적인 수준에서, 긍정심리학은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이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를 한다. 다시 말하면, 용기, 인내, 정직 혹은 지혜와 같은 개인 특성과 인간의 강점 혹은 미덕으로 정의되는 긍정적인 행동과 특성들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심미적인 민감성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활용하는 능력, 수월성을 추구하는 능력 등에 대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집단 혹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긍정심리학은 긍정적인 제도의 발달, 창조,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긍정심리학은 건강한 가족 형성, 건강한 직장 환경, 그리고 긍정적인 지역 사회 문제를 다룬다. 제도가 시민 모두를 어떻게 더 잘 지지하고,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심리학의 세 가지 연구 영역을 응용하여, Keyes와 Lopez(2002)는 정신 건강에 대한 완전한 분류체계가 세 가지 일반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이다. 그들의 모델에서 정서적 안녕감은 생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의미한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은 사적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행동적, 정서적 측면의 기능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환경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이러한 Keyes와 Lopez(2002)의 분류체계에 따라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고자 했던 시도로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들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초기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는 표준화된 객관적 조건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여겨 수입, 주거상태, 건강 등 삶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조건만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평가했던 사회지표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작되었다.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이 삶에 대한 태도로서 기본적으로 인지적-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Campbell(1981: 김혜원, 김명소, 2000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인지적-정서적 요소의 구분은 대부분 어느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인지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고, 일상생활의 경험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정서적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지적 요소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의미하며 정서적 요소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감정에 근거한 평가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뉘는데, 이 둘은 동일 차원의 양극이라기보다는 서로 독립된 차원이라 할 수 있다(Emmons & Diener, 1985; 김혜원, 김명소, 2000에서 재인용). 그리고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여러 다른 변인들과 서로 다른 관계성을 보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 Mckennell, 1980; 김정순, 2006에서 재인용).

최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의 원인, 행복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수들 그리고 행복과 삶의 만족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변수들을 연구한다.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파악하는 입장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삶의 질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주된 측정도구인 Life Satisfaction Index(LSI)는 심리적 안녕감의 기본적인 구조를 정의한다기 보다는 나이 들어가면서 성공적으로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연령에 따른 일반화에 상당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출발자체가 심리학적 이론과 맞닿아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둘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관점에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

는가를 의미한다(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 즉,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다.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의 개성화, Allport의 성숙,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 그리고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enviro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의 6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심리적 안녕감이라 하였다.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6차원에 대한 설명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Ryff와 Keyes(1995)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다.

Ryff(1989)는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미국 성인 남녀 321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여러 척도들(정서 균형척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의욕, 통제소재, 우울척도, 사기)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는 삶의 만족도, 정서균형,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심리적 안녕감의 다른 차원들 즉,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적 성

장은 주관적 안녕감의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Ryff와 Keyes(1995)는 미국에 거주하는 1,09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6개의 심리적 안녕감 차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Ryff의 심리적 안녕감이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Markus와 Kitayama(1991: 차경호, 2004에서 재인용)는 문화에 따라서 자기(self)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개개인은 매우 다른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차경호(2004)는 한국과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5요인에서 한국 대학생이 미국대학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두 집단 모두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가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삶의 목적은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대인관계는 한국대학생 집단에서만, 그리고 삶의 목적은 미국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김혜원과 김명소(2000)가 기혼여성 471명을 대상으로

Ryff(1989)가 제안한 6차원 모델을 경험적 자료에 적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 중에서 개인적 성장을 제외한 나머지 5요인이 분명하게 독립요인으로 도출됨을 발견하였다. 개인적 성장은 성장, 발전과 변화의지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되는 모양을 보였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성인 대상연구에서도 동일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양병한(2003)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율성의 4개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로 추출되었다. 이 중 삶의 목적을 제외한 3요인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컨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성인들에 있어서는 Ryff(1989)의 6요인 구조가 타당하다는 보고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이나 연령대에 따라 다른 요인 구조를 보이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Ryff(1989)는 생애 주기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대상을 청년(평균 19.53세), 중년(평균 49.85세), 그리고 노인(평균 74.96세)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중년의 경우, 삶의 목적이 노인집단보다 자율성이 청년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년과 노인 집단 모두 청년집단보다 환경에 대한 통제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아수용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es와 Shmotkin(2002)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

다고 말한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는 성인 집단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자아수용과 개인적 성장 및 환경에 대한 통제가 주관적 안녕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연령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시사했다.

세 번째, 집단 혹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Keyes(1998)는 개인의 안녕감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의 환경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Keyes(1998)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도전적인 문제들은 사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잘 사는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델들이 안녕감의 사적인 특성만을 강조하지만, 개인은 사회구조와 공동체 속에 내재해 있고 끊임없이 사회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한다. 따라서 개인의 최적의 기능과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역을 다루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사회적 안녕감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Larson, 1992, 1996; Keyes, 1998에서 재인용).

Keyes(1998)는 사회적 안녕감을 5개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얼마나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느끼는지,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들의 지지와 동질성을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은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이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근면하다

고 생각하는 등의 신념이다. 즉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가를 말한다. 개인의 일상적 활동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그러한 활동들이 공동체에 의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 기여이다. 넷째, 사회적 실현(social actualization)은 사회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얼마나 개인이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지를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rence)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특징, 조직, 작용에 대한 지각이다. 사회적 응집력에는 세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 사회가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이라고 믿는 정도가 포함된다.

Keyes(1998)는 미국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녕감의 5요인 모델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몇 개의 사회적 구인을 가진 척도들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성취와 나이에 의해 사회적 안녕감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안녕감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국내 연구는 주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예: 고재홍, 조기영, 2003; 배성애, 1998; 백용매, 2004; 전신현, 1996;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조복미, 2001)가 이루어졌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기형(2006)의 연구이다. 그는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도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의 안녕감은 대학생, 성인과는 다른 양상의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집단에도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과 Keyes(1998)의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구조를 검증해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Roberts 등(2005)은 긍정 심리학이 성인에만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하고, 아동 청소년기를 단지 성인기에 선행하는 기간으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발달적 조망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배우고 가치판단과 행위의 내적 기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혜성, 1998). 따라서 청소년기는 자신의 내적 변화와 함께 사회로부터의 새로운 요구에 부딪치는 시기이므로 성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성인과는 별도의 청소년들의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안녕감과 기타 적응관련 변수 간의 관계의 견지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Keyes와 Lopez(2002)의 정신건강 분류체계에 따라 주관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안녕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도 적합한 구조를 갖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Keyes(1998)가 제안한 사회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도 적합한 구조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 집단에서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밝히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3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2명이었다. 이 중 남학생이 302명, 여학생이 300명이었다.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Diener 등(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Pavot, Diener, 1993)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측정하였는데, 삶의 만족도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

우 많이 그렇다)에 이르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원저자들은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87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84이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측정을 위해서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의 긍정적-부정적 정서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을 신현숙 등(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ANAS는 긍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와 부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많이 그렇다)로 채점되는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정서를 '지금 이 순간', '오늘', '지난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작년에', 또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느끼는지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태정서를 측정하고자 '지난 한달 동안' 느낀 기분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긍정적 정서 점수는 긍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부정적 정서 점수는 부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이 척도의 원저자들은 긍정적 정서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를 .88, 부정적 정서 문항들에서는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긍정적 정서 문항들에서 .83, 부정적 정서 문항들에서 .85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PWBS는 6개의 요인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요인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

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다. 이 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매우 그렇다)으로 채점되는 6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의 원저자들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 척도, 즉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신뢰도 계수를 .52, .49, .37, .49, .33, .40으로 보고하였다(Ryff & Keyes, 1995). 이는 각 하위척도를 3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8문항에 대하여 원저자들이 보고한 신뢰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요인적절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자아수용 6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5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 4문항, 삶의 목적 3문항, 개인적 성장 3문항 등 총 28문항을 선별하였다(부록 2).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78, .80, .61, .65, .68, .54이었다.

사회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은 Keyes(1998)가 개발한 사회적 안녕감 척도(Social Well-Being: SWB)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5개의 요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요인은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실현, 사회적 통합, 사회적 기여, 사회적 수용이다. 이 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매우 그렇다)으로 채점되는 6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의 원저자는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차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64, .64, .73, .66, .41으로 보고하였다(Keyes, 1998). 본 연구에서는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요인적절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적 응집력 4문항, 사회적 실현 3문항, 사회적 통합 5문항, 사회적 수용 3문항 등 총 15문항을 선별하였다(부록 3).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54, .63, .83, .64이었다.

결 과

변수 간 상관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SPSS 12.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AMOS 4.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간 관계를 살펴 보았고, 각 예언변수의 하위요인이 다른 변수의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을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 상관을 보면, 심리적 안녕감 모든 하위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65~.08, .53~.13, -.12~-.45)이 있었다. 사회적 안녕감 모든 하위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간 상관을 보면, 사회적 안녕감

표 1.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②	.38***												
③	-.25***	-.05											
④	.65***	.53***	-.28***										
⑤	.34***	.39***	-.33***	.44***									
⑥	.08*	.24***	-.19***	.26***	.36***								
⑦	.40***	.22***	-.45***	.32***	.35***	.22***							
⑧	.18***	.22***	-.12**	.22***	.31***	.22***	.19***						
⑨	.08*	.13**	-.19***	.19***	.27***	.26***	.16***	.29***					
⑩	.13**	.10*	-.21***	.14**	.25***	.20***	.28***	.17***	.23***				
⑪	.14**	.16***	-.05	.20***	.23***	.03	.11**	.18***	.26***	.21***			
⑫	.48***	.46***	-.18***	.60***	.54***	.27***	.22***	.31***	.24***	.14**	.39***		
⑬	.20***	.17***	-.32***	.21***	.35***	.09*	.41***	.12**	.21***	.30***	.23***	.27***	
M	3.14	2.89	2.70	3.25	4.34	3.63	2.99	4.38	4.57	3.88	4.59	3.81	3.24
SD	1.23	.68	.79	.91	.93	.79	.94	1.08	.94	.88	.97	.96	1.06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 삶의 만족도, ② 긍정적 정서, ③ 부정적 정서, ④ 자아수용, ⑤ 긍정적 대인관계, ⑥ 자율성, ⑦ 환경에 대한 통제, ⑧ 삶의 목적, ⑨ 개인적 성장, ⑩ 사회적 응집력, ⑪ 사회적 실현, ⑫ 사회적 통합, ⑬ 사회적 수용

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실현과 부정적 정서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48~.13, .46~.10, -.32~-.18)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구조

첫째, 심리적 안녕감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문항-총점간의 상관관계 .40이하인 5문항을 제외하고 4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 1보다 큰 요인 11개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scree plot에서는 6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반복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의 수를 6으로 지정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시켜보았다. 요인 1은 주로 자아수용을 나타내는 문항(9, 51, 48, 28, 23, 4)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2는 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문항(24, 10, 5, 39, 47, 32, 15)들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3은 주로 환경에 대한 통제를 나타내는 문항(20, 7, 49)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4는 주로 자율성을 나타내는 문항(44, 40, 6, 25, 11, 16)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5는 주로 삶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항(13, 8, 42)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요인 6은 주로 개인적 성장을 나타내는 문항(54, 50, 41)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인 기대와 다르게 분류되어 요인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21문항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요인 부하량이 .30이하로 낮은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나머지 28문항으로 주축분해법으로 분석하였다. 요인의 수를 6개로 지정하고, 직교회전한 결과 추출된 6개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이상(각각 4.30, 3.55, 2.26, 2.61, 2.72, 2.37)이었다. 그러나 요인 4에 포함되었던 한 문항(16)이 요인 3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 문항이 요인 3에 더 적합한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6개 요인 모두 구성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40 이상이었고, 6요인 모두 1개의 주성분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경로계수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11번 문항의 경로계수가 .17로 낮지만, CR=3.56으로 기준값인 1.96을 초과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경쟁모형 1은 김혜원과 김명소(2000)의 6요인 모형(45문항)을 경쟁모형 2는 양병환(2003)의 4요인 모형(31문항)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3가지 모형에서 절대 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 값이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검증통계량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경쟁모형 1	3388.68	930	.00	.96	.96	.07
경쟁모형 2	1778.92	428	.00	.72	.75	.07
연구모형	1120.72	335	.00	.98	.98	.06

주. 경쟁모형1=6요인(45문항), 경쟁모형2=4요인(31문항), 연구모형=6요인(28문항).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분석결과 경쟁모형 1과 연구모형이 TLI와 CFI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95보다 높아 이 두 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수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가 경쟁모형 1의 경우 .07을 보이고 연구모형의 경우 기준값인 .06(Hu & Bentler, 1995)이어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구조

첫째, 사회적 안녕감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문항-총점간의 상관 .40이하인 3문항을 제외하고 27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 1보다 큰 요인이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scree plot에서도 5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의 수를 5로 지정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시켜보았다. 요인 1은 주로 사회적 통합을 나타내는 문항(11, 16, 26, 6, 21)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2는 요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요인 3은 주로 사회적 실현을 나타내는 문항(4, 19, 28)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4는 주로 사회적 수용을 나타내는 문항(12, 17, 2)들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5는 주로 사회

적 응집력을 나타내는 문항(15, 20, 29, 5)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인 기대와 다르게 분류되어 요인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13문항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요인부하량이 .30이하로 낮은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13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5문항으로 주축분해법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하고, 직교회전 결과, 추출된 4개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이상(각각 4.17, 2.10, 1.26, 1.07)이었다. 모든 구성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으로 나타나 4요인 모두 1개의 주성분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경로계수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경쟁모형으로는 Keyes의 5요인 모형(30문항)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2가지 모형에서 절대 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 값이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검증통계량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및 RMSEA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분석결과 모수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가 .08로 두 모형 모두에서 기준값인 .06(Hu & Bentler, 1995)을 초과하지만, 연구모형의 경우 비교적합도지수인 TLI와 CFI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95보다 높아 경쟁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부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경쟁모형	1613.27	314	.00	.68	.72	.08
연구모형	405.16	84	.00	.98	.99	.08

주. 경쟁모형=5요인(30문항), 연구모형=4요인(15문항).

모형에 비해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

첫째,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떤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요인은 자아수용($\beta=.65$, $\Delta R^2=.42$, $t=20.82$, $p=.00$)과 환경에 대한 통제($\beta=.21$, $\Delta R^2=.04$, $t=6.74$, $p=.00$) 그리고 자율성($\beta=-.13$, $\Delta R^2=.02$, $t=-4.1$, $p=.00$)이었고, 이들 요인의 설명분산은 48%이었다.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은 자아수용($\beta=.53$, $\Delta R^2=.28$, $t=15.19$, $p=.00$), 긍정적 대인관계($\beta=.20$, $\Delta R^2=.03$, $t=5.27$, $p=.00$)이었고, 이들 요인의 설명 분산은 31%이었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은 환경에 대한 통제($\beta=-.45$, $\Delta R^2=.21$, $t=-12.47$, $p=.00$), 긍정적 대인관계($\beta=-.20$, $\Delta R^2=.03$, $t=-5.1$, $p=.00$), 개인적 성장($\beta=-.08$, $\Delta R^2=.01$, $t=-2.21$, $p=.03$), 자아수용($\beta=-.08$, $\Delta R^2=.01$, $t=-2.00$, $p=.04$)이었고, 그 설명 분산은 26%로 위의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었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예언하는 하위요인이었다.

둘째, 사회적 안녕감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의 각 하위요인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요인은 사회적 통합($\beta=.48$, $\Delta R^2=.23$, $t=13.31$, $p=.00$)과 사회적 수용($\beta=.08$, $\Delta R^2=.01$, $t=6.74$, $p=.00$)이었고, 이들 요인의 설명분산은 24%이었다. 긍정적 정서를 예언 하는 요인은 사회적 통합($\beta=.46$, $\Delta R^2=.21$, $t=12.68$, $p=.00$)이었고, 이 요인의 설명분산은 21%이었다.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요인은 사회적 수용

표 4.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예언변수	B	SE B	β	t	ΔR^2	p
삶의 만족	자아수용	.87	.04	.65	20.82***	.42	.00
	환경통제	.28	.04	.21	6.74***	.04	.00
	자율성	-.20	.05	-.13	-4.10***	.02	.00
긍정적정서	자아수용	.39	.03	.53	15.19***	.28	.00
	긍정관계	.15	.03	.20	5.27***	.03	.00
부정적정서	환경통제	-.38	.03	-.45	-12.47***	.21	.00
	긍정관계	-.17	.03	-.20	-5.11***	.03	.00
	개인성장	-.15	.03	-.08	-2.21*	.01	.03
	자아수용	-.07	.04	-.08	-2.00*	.01	.04

* $p<.05$. ** $p<.01$. *** $p<.001$.

표 5. 사회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예언변수	B	SE B	β	t	ΔR^2	p
삶의 만족	사회적통합	.61	.05	.48	13.31***	.23	.00
	사회적수용	.09	.04	.08	2.18*	.01	.03
긍정적정서	사회적통합	.32	.03	.46	12.68***	.21	.00
	사회적수용	-.24	.03	-.32	-8.24***	.10	.00
부정적정서	사회적응집	-.11	.04	-.12	-2.96*	.01	.00
	사회적통합	-.07	.03	-.09	-2.25*	.01	.03

* $p < .05$. ** $p < .01$. *** $p < .001$.

($\beta = -.32$, $\Delta R^2 = .10$, $t = -8.24$, $p = .00$), 사회적 응집($\beta = -1.2$, $\Delta R^2 = .01$, $t = -2.96$, $p = .00$), 사회적 통합($\beta = -.09$, $\Delta R^2 = .01$, $t = -2.25$, $p = .03$)이었고, 이들 요인의 설명분산은 12%로 위의 변

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었다. 특히,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통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예언하는 하위요인

표 6.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성	종속변수	예언변수	B	SE B	β	t	ΔR^2	p
남학생	삶의 만족	자아수용	.83	.06	.61	14.111***	.43	.000
		환경통제	.28	.05	.23	5.266***	.04	.000
		개인성장	-.15	.06	-.11	-2.631**	.01	.009
	긍정적정서	자아수용	.36	.04	.48	9.354***	.32	.000
		긍정관계	.16	.04	.21	4.150***	.04	.000
		환경통제	-.24	.04	-.31	-5.551***	.15	.000
	부정적정서	긍정관계	-.13	.05	-.15	-2.565**	.03	.001
		개인성장	-.10	.05	-.12	-2.072*	.01	.039
	여학생	삶의 만족	자아수용	.73	.06	.54	11.591***	.41
환경통제			.39	.05	.33	7.452***	.09	.000
자율성			-.21	.07	-.13	-3.074**	.02	.002
긍정적정서		자아수용	.29	.04	.40	7.066***	.24	.000
		긍정관계	.14	.04	.20	3.533***	.03	.000
		환경통제	-.25	.04	-.32	-5.938***	.17	.000
부정적정서		긍정관계	-.17	.05	-.20	-3.368**	.06	.000
		자율성	-.18	.06	-.17	-3.171**	.03	.002

* $p < .05$. ** $p < .01$. *** $p < .001$.

이었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의 영향력

첫째, 성별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변수로는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에 대한 통제와 긍정적 대인관계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과 부정적 정서를 예측

하는 변수에 있어서 남학생에서는 개인적 성장이 중요한 변수인 반면 여학생은 자율성이 중요한 변수라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사회적 안녕감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남학생, 여학생 집단 모두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변수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수용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사회적 통합은 긍정적 정서의 유의한 예측변인이기도 했다.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변수로는 남학생은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수용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사회적 수용, 사회적 통합, 사회적 실현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예언변수	B	SE B	β	t	ΔR^2	p
남학생	삶의 만족	사회적통합	.60	.07	.46	9.091***	.22	.000
		사회적응집	.17	.07	.12	2.418*	.02	.016
	긍정적정서	사회적통합	.37	.04	.51	10.252***	.26	.000
		사회적응집	-.24	.05	-.29	-4.923***	.13	.000
	부정적정서	사회적수용	-.14	.04	.19	-3.245**	.03	.001
		사회적통합	.62	.07	.48	8.792***	.24	.000
여학생	삶의 만족	사회적응집	.23	.08	.16	3.063**	.02	.007
		사회실현	-.19	.07	-.14	-2.633**	.02	.009
	긍정적정서	사회적통합	.29	.04	.41	7.718***	.17	.000
		사회적수용	-.23	.04	-.30	-5.330***	.11	.000
	부정적정서	사회적통합	-.17	.05	-.20	-3.458**	.02	.005
		사회실현	.12	.05	.14	2.357*	.02	.019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안녕감을 주관적 만족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둘째, 사회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셋째,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이 서구에서 그리고 성인 집단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에서도 6개의 하위요인을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8문항의 6요인 구조모형(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이 하나의 상위요인으로 수렴됨을 보고한 국내외의 결과(Ryff & Keyes, 1995; 차경호, 1999; 김혜원, 김명소, 2000;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병한(2003) 연구의 4요인 31문항과 김명소(2001)의 6요인 46문항에 비해 본 연구의 결과는 적은 문항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고등학교 일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져 척도의 번안에 있어 청소년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다소 다른 문구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

로 넘어가는 이행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분명히 다른 발달적 과업과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Keyes(1998)가 제시한 사회적 안녕감의 5요인 구조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실현이라는 4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es(1998)의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기여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상에 기여할만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회적 기여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는 일상에서 사회적 기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학교문화가 사회적 기여 보다는 성적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개인의 성장을 강조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자아수용이고, 부정적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변인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소 외(2001)의 연구에서 20대 연령층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고 차경호(2004)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 10대와 20대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아수용은 김혜원과 김명소

(2000),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양병한(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의 세 하위요인 모두의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집단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환경에 대한 통제는 삶의 만족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의 유의한 예측변수였다. 이는 자신의 학습 환경이나 외적인 활동 및 학습 계획들을 잘 조절하는 등의 능력을 가졌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더 높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부정적 정서는 덜 경험함을 말해준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둘 다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맺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만 긍정적 대인관계가 주관적 만족감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던 차경호(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는 대인관계와 정서요인과의 관계가 서구 문화권에서 조사된 것 보다 더 밀접하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이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대인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적응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많은 연구들(예: 문은식, 2002)과도 일치한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른 예측변인들에 비하면 설명력이 약하지만 삶의 만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자율성의 β 의 부호가 음수라는 것이다. 이는 삶의 만족에 대한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삶의 만

족과 자율성의 상관이 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삶의 만족에 대한 자율성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율성이 높을 경우 학교나 가정의 요구와 충돌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을 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집단을 나누었을 때 삶의 만족에 대한 자율성의 부적영향이 여학생에서만 나타났고 남학생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적으로 여자에게는 남자에 비하여 자율성의 발달을 덜 강조하여(Gilligan, 1993: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에서 재인용) 여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억압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성인여성 집단에서만 긍정적 정서와 자율성이 부적상관을 보인 김명소(2001)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개인적 성장이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잠재력을 성장,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교육체제가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게 힘들게 경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학생의 자율성과 남학생의 개인적 성장은 부정적 정서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서도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의 경우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 때, 여학생의 경우 자율성을 추구할 때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부정적 정서는 덜 느낀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적 판단과 세상과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상태가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되지 않은 양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정서적,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사회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해 주는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은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수용이었다. 사회적 통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모두에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신을 가족이나 학급, 또래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어떤 역할을 갖는 것이 보다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과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설명하는 변수는 사회적 수용이었다.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 친구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주관적 안녕감의 예측변인에서 제외된 요인이 사회적 실현이다. 즉 사회의 잠재력을 믿고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응집력은 삶의 만족과 부정적 정서에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여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실현은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부정적 정서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의 특징, 조직, 작용에 대해 지각하고, 사회현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갖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에 여학생은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 믿고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여학생들의 이러한 기대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여학생들의 낮

은 주관적 안녕감이 이러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이 두 가지가 상호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결과로 밝힐 수 없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던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의 세 가지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를 질병의 관점이 아닌 강점을 부각시키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구성요인의 차이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원척도의 번역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후 너무 많은 문항들이 삭제됨으로써 이 도구가 서구에서 개발된 도구와 동등한 구인을 측정하는 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의 하나이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차원에서 남녀 차이와 청소년 집단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불균형을 보여주었던 결과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경순 (2006).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형 (200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 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청소년의 낙관 성과 비관성: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 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79-97.
- 양병한 (2003). 초등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교 육학연구*, 41(4), 285-309.
- 이혜성 (1998). 청소년 가치발달과 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 학연구*, 11(3), 321-33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Dalai Lama & Curtler, H.C. (2002).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서울: 김영사.
- Diener, E., & Emmons.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Hu, L.-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76-99). Thousand Oaks, CA: Sage.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M., & Lopez, S. J. (2002). Toward as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45-5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Keyes, C. L. M., & Shmotkin,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Roberts, M. C., Brown, K. J., Johnson, R. J., & Reinke, J. (2005).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In C. R. Snyder, & Shane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 67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원고접수일 : 2007. 3. 31.
제재결정일 : 2007. 5. 31.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Well-being in Korean Adolescents: Their Struct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Jeonghee Lyu

Myoungja Lee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whether 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and Keyes(1998)'s social well-being model fit our data on Korean adolescents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examined along with gender differences in those three areas. Factor analyses of our data confirmed that Ryff's six-factor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is indeed applicable to Korean adolescents. On the other hand, Keyes' original five-factor model of social well-being had to be modified into a four-factor one to be a good fit to our data on Korean adolescent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subjective well-being showed that self-acceptance as a sub-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integration as a sub-scale of social well-be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ree dimension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showed that personal growth, a sub-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negative affect in both girls and boys. Social coherence as a sub-scale of social well-being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negative affect in the boys' group; autonomy, one of the sub-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actualization, one of the sub-scales of social well-be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negative affect in the girls' group.

Key words :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부 록

부록 1.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와 문항들

자아수용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식하고 수용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긍정적 대인관계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강한 애정, 친밀감,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인관계란 주고 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자율성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한다;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환경에 대한 통제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복잡한 외적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 한다;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삶의 목적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
개인적 성장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

부록 2. 심리적 안녕감 문항

자아수용	·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해보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낀다. ·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	· 친구나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염려하는 편이다.(-)
환경에 대한 통제	·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에 겹다.(-) ·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삶의 목적	· 나는 미래보다는 주로 현재만을 생각한다.(-) ·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개인적 성장	· 이제껏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부록 3. 사회적 안녕감 문항

사회적 통합	· 내가 어떤 것을 말하면, 공동체의 사람들은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이다. ·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과 밀접함을 느낀다. ·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 나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 공동체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다.
사회적 수용	·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 요즘 사람들은 점점 부정직해지는 것 같다.(-) ·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않다.(-)
사회적 실현	·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다.(-) ·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되어가고 있다. · 사회적 진보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적 응집력	·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대부분의 문화는 너무 낯설어서 나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 사회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 세상은 나에게 너무 복잡하다.(-)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부록 4. 심리적 안녕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델의 요인 계수 행렬

문항 번호	요인1 (긍정관계)	요인2 (자아수용)	요인3 (환경통제)	요인4 (자율성)	요인5 (삶의목적)	요인6 (개인성장)	SMC
24	.78	--	--	--	--	--	.60
10	.67	--	--	--	--	--	.45
39	.62	--	--	--	--	--	.38
5	.60	--	--	--	--	--	.36
47	.60	--	--	--	--	--	.36
32	.61	--	--	--	--	--	.37
15	.40	--	--	--	--	--	.16
48	--	.68	--	--	--	--	.46
51	--	.70	--	--	--	--	.49
28	--	.59	--	--	--	--	.34
9	--	.63	--	--	--	--	.40
4	--	.57	--	--	--	--	.32
23	--	.47	--	--	--	--	.22
20	--	--	.64	--	--	--	.40
7	--	--	.66	--	--	--	.43
49	--	--	.58	--	--	--	.34
16	--	--	.40	--	--	--	.16
6	--	--	--	.58	--	--	.34
44	--	--	--	.46	--	--	.21
40	--	--	--	.75	--	--	.57
11	--	--	--	.17	--	--	.03
25	--	--	--	.43	--	--	.19
8	--	--	--	--	.74	--	.55
42	--	--	--	--	.67	--	.45
13	--	--	--	--	.52	--	.27
54	--	--	--	--	--	.50	.25
50	--	--	--	--	--	.63	.40
41	--	--	--	--	--	.49	.24

부록 5. 사회적 안녕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델의 요인 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1 (사회적응집)	요인2 (사회적실현)	요인3 (사회적수용)	요인4 (사회적통합)	SMC
15	.55	--	--	--	.37
5	.61				.30
20	.44	--	--	--	.19
29	.29	--	--	--	.09
4	--	.73	--	--	.54
19	--	.57	--	--	.32
28	--	.51	--	--	.26
2	--	--	.50	--	.25
12	--	--	.71	--	.51
17	--	--	.66	--	.43
6	--	--	--	.68	.46
11	--	--	--	.76	.58
16	--	--	--	.70	.49
26	--	--	--	.73	.54
21	--	--	--	.66	.44